

진도군, 톳·김·모자반 등 면허양식장 479ha '승인'

7월 초부터 내년 6월 말까지 양식업·어업 면허 처분 실시 계획

진도군이 어장이용개발계획에 따라 해역의 종합적 이용을 위한 면허 양식장 479ha에 대해 전라남도로부터 최종 승인받았다.

어장이용개발계획 등 이면에 승인된 어장은 김, 모자반, 톳 등 해조류 양식장 등이며, 올해 7월초부터 내년 6월 말까지 양식업과 어업 면허 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올해 어장 이용개발은 적지 조사를

거쳐 어장 관리 조건을 강화하고 생산성 있는 해역의 대체 개발을 희망하는 어업인 의견을 수렴해 맞춤형 어장이용 개발계획에 중점을 두었다. 개발 유형별로는 ▲양식업 면허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재개발 15건, 194ha ▲기존 어장을 생산성이 양호한 해역으로 이동해 대체 개발하는 8건, 285ha 등이다.

군은 양식업과 어업권의 유효기간 만료 수면의 재개발, 어장 적지의 이

설 대체개발 등 어장의 종합적 이용 관리를 위한 면허양식장과 어장개발 계획을 수산업법 등에 근거해 매년 수립하고 있다.

진도군 수산지원과 관계자는 "양식 산업 경쟁력과 안정적인 어업소득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면허 양식장 확보와 현장에 맞는 어장이용개발계획을 수립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진도=조성용기자

강진중앙로상가, 문화관광형 상가 조성 '박차'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 재선정...2년간 총 8억 8천만 원 투입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추진



강진중앙로상가는 지난해 12월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원하는 2021년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에 재선정됨에 따라 2년간 총 8억 8천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문화관광형 상가'로 조성한다.

군은 지난 20일 강진중앙로상가 문

화관광형시장 육성 국비 공모사업 추진협회를 개최했다.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은 시장이 보유한 자원과 지역의 역사·문화·관광자원을 연계하여 지역 특색이 가미된 쇼핑과 문화체험이 가능한 테마형 관광시장으로 육성하는 사업이다.

중앙로상가는 2018년 특성화 첫걸음 시장으로 선정되고, 2019년에는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에도 선정돼 지난해까지 △특화거리 조성 △강진품에 마켓운영 △스마트상가 구축 △상인동아리 운영 △행사이벤트 실시 등의 사업을 추진했다.

군은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을 통해 내년까지 △관광객 상가 유입 촉진, △야관 경관조명 조성, △강진품에 마켓운영, △정기 세일데이 운영, △상인동아리 운영 △행사이벤트 등 사업을 추진해 강진중앙로상가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강진군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진=김영일기자

재단법인 해남문화관광재단 9월 출범 '박차'

대표이사 포함 2개팀 5명

해남군이 문화관광산업의 진흥을 위한 전담기구인 해남문화관광재단 출범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해남군은 오는 9월 해남문화관광재단 출범을 목표로 전라남도 지방출자 출연기관 설립심의회의 심의 및 관련 조례 제정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데 이어 이달말까지 상임 대표이사 및 비

상임 임원을 공개모집한다.

해남문화관광재단은 대표이사를 포함해 2개팀, 5명으로 출범하며, 관광 및 문화분야 중장기 정책개발 수립과 관광마케팅사업 종합 기획, 지역관광 진흥사업, 관광상품 개발, 예술인 지원 등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기동취재본부

장흥군, 전남소방학교 찾아 장미꽃 나눠 준 이유는?

코로나19 어려움 겪는 화훼농가 돕기 위해 꽃 전달



장흥군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훼 농가를 돕기 위해 지난 21일 전남 소방학교에서 새내기 소방공무원 157여 명에게 장미꽃을 전달하며, 졸업을 축하했다고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가족 방문이 제한된 이번 행사에서 장흥군은 신규 소방공무원들에게 가족을 대신하여 졸업 축하하는 장미꽃을 전달했고, 졸업생들은 장흥을 잊지 않고 다시 방문할 것을 약속했다.

또한 전남 소방학교 신입 소방공무원과 직원들을 대상으로 저출산과 결혼 인구 감소 문제의 심각성과 전입 혜택 등을 홍보하며 인구 늘리기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장흥읍 우산리 소재의 전남소방학교에서 16주간의 이론과 현장 교육 과정을 수료한 신입 소방공무원들은 소방관서에 배치돼 도내의 안전을 지키게 된다.

장흥군은 결혼장려금 최대 7백만 원 지원, 출산장려금 최대 1천만 원 지원, 신혼부부 주거비 지원을 비롯하여 청춘남녀 만남 지원 사업(정바지), 전입세대 농산물 지원 등 다양한 인구 늘리기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

장흥=김도영기자



강진군, 민원실 특이 민원 대응 모의훈련

강진군은 지난 20일 군청 민원실에서 민원 담당 공무원, 청원경찰, 강진경찰서 경찰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원 상담 중에 발생 가능한 폭언·폭행·집기 파손 등 가상 상황 속에서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응하는 모의 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민원인의 갑작스러운 폭언과 폭행 등 위험한 상황이 발생시 신속하게 대응해 담당 공무원과 방문객을 보호하는데 중점을 뒀다.

이날 모의상황을 통해 악성 민원인이 발생함에 따라 담당공무원이 112 상황실으로 신고하고, 강진경찰서에서 현장 출동해 폭력을 사용한 민원인을 제압하고, 2차 피해 예방훈련과, 총평을 통해 미비한 점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군은 예고 없이 발생할 수 있는 비상상황을 대비해 지휘통제반, 초기대처반, 민원인 대피 유도반, 피해공무원 구조반 등 대응반을 구성하고, 경찰서 등 관련 기관과 연계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이승욱 군수는 "폭언, 폭행 등 특이 민원이 발생시 체계적인 대응에 따라 신속하게 공무원을 보호하고, 방문 민원인의 2차 피해를 예방해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민원실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강진=김영일기자

장흥군 영전지구 대구획 경지 정리 (시설 개량) 사업 주민설명회 개최

장흥군은 지난 21일 장흥읍 영전1구 마을회관에서 '장흥 영전지구 대구획 경지 정리(시설 개량) 기본 및 실시 계획'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는 장흥읍 영전1구와 송암마을 주민 및 장흥군과 장흥읍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영전지구는 1973년 경지 정리를 시행했던 구간으로 시설물이 매우 노후화되어 매년 여름 폭우 시 농경지가 침수되고, 영농철 농기계 통행 시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등 주민들이 농경지를 경작할 때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참석자들은 단면이 좁고 누수가 발생하는 용·배수로 구간 정비의 건의하고, 대형 농기계와 차량의 교행을 위해 농로 확장이 빨리 이뤄지기를 바라는 등 많은 관심을 나타냈다.

군 관계자는 "당초 총 사업비 26억 원으로 2020년 착수지구로 선정됐으나, 국가 예산의 지방 전환 등의 사정으로 1년이 지연되어 올해부터 추진하게 됐다"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설계 및 행정 절차를 완료하고, 가을부터 공사를 착수하여 2023년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장흥=김도영기자

